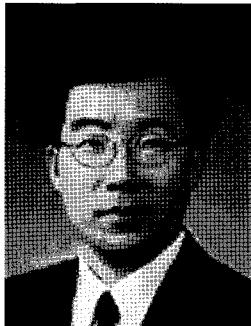


#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경쟁규범



홍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지원, 국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산업지원정책이 경쟁저해요인으로 간주되어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경쟁정책의 국제화에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I. 서론

세계화(globalization)는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자본, 기술 및 지식 등이 국경에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1998)에 따르면 세계 무역규모는 197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세계 무역은 생산보다 4배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가운데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무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높은 수익을 찾아 대규모의 자본이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화는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의 교역은 물론 국제적인 논문 공저 활동, 국제적인 연구개발 프

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또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및 재무업무 등을 국경에 상관없이 수행하는 글로벌 경영을 실현하며, 그것의 진전은 국가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변화시킨다.

이 글은 세계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촉진하는 환경변화를 설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규범 제정에 대한 논의와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II. 세계화의 원동력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재화와 서비스, 자본의 이동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가간, 특히 OECD국가간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간 전략적 제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개방 확대는 90년대 들어 세계화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 1. 기술의 발전과 경제활동 범위 확대

Evans and Wurster(1999)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인터넷 확산으로 기존 경제학에서 적용되었던 네트워크의 규모(reach)와 정보의 풍부성(richness) 간의 반비례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분석<sup>1)</sup>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대규모의 정보를 지리적인 격차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와도 저렴한 비용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접속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 상무성(2000)에 따르면 1999년 3월 1억 7,100만 명이던 세계 인터넷 접속은 1년 사이에 78% 증가하여 3억 4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북미에 치중하던 인터넷의 지역적인 불균형도 개선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미국과 캐나다가 전체 접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졌고 증가율도 미국과 캐나다가 41%인데 비해 다른 지역은 100%를 초과하였다.

<표> 세계 인터넷 접속(단위 : 백만 명)

	99. 3.	2000. 3.	증감	증가율(%)
아프리카	1.1	2.6	1.5	136
아시아/태평양	27.0	68.9	41.9	155
유럽	40.1	83.4	43.3	108
중동	0.9	1.9	1.0	111
캐나다/미국	97.0	136.9	39.9	41
남미	5.3	10.7	5.4	102

1) 네트워크의 규모는 연결성(connectivity)을, 정보의 풍부함은 정보의 양(bandwidth), 맞춤성(customization), 상호교류(interactivity) 등을 의미한다. reach와 richness의 trade-off란 주어진 비용에서 reach(richness)를 얻기 위해서는 richness(reach)를 희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는 reach와 richness를 둘 다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중설이나, 판매직원 중원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예다.

2) Kang and Johansson(2000)

### 2. 시장개방 확대

시장개방(liberalization)과 탈규제(deregulation)도 국제적 전략적 제휴나 M&A를 촉진하여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이동을 촉진하였다. 90년대 들어 OECD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 자본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제적인 기업간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적 M&A는 1991년 850억 달러에서 1998년 5,580억 달러로 일곱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995년 이후 국제적 M&A는 거래액은 증가하는데 비해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British Petroleum(영국)과 Amoco(미국)의 M&A, Daimler-Benz(독일)과 Chrysler(미국)의 M&A 등 상위 6개의 M&A는 1,690억 달러에 이르고 국제적 M&A 전체에서 30% 이상을 차지하였다.<sup>2)</sup>

한국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입, 인수합병의 허용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감소하는 조치로 활발한 자본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III. 세계화와 기업전략

Ronald Coase는 “왜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 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buy)하지 않고 직접 생산하여 조달(make)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는 거래에 대한 겸색, 계약체결 및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높을 경우 직접 조달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유

리하기 때문에 기업은 수직통합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규모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전문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업활동이 활발해 진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쟁으로 원가절감이 요구되고 인터넷, IT활용으로 거래상대방, 거래되는 재화 및 가격에 보다 완전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기업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되고 주변사업은 분사하거나 외부조달하고 있다. 세계화는 제휴대상기업의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는 global sourcing을 촉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시설, 마케팅, 유통망 등 보완 자산을 가진 기업과 국제적인 제휴를 통해 시장 수요의 변화나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와 유럽이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북미기업과 유럽기업들은 상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마케팅이나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과 전략적 제휴 또는 M&A 등을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기업소유에 대한 규제에 따라 제휴방식이 변할 수 있다.<sup>3)</sup>

연구개발투자의 규모와 불확실성 증가도 국제 간 기업간 제휴를 촉진한다.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제품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통신과 방송기술의 융합에서 보듯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다른 분야와의 공동 연구가 요구되면서 연구개발투자는 한 기업이 담당하기에는 투자 규모나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

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간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서 기업간 제휴는 특히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기업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sup>4)</sup>

글로벌 경영은 다른 기업활동과 마찬가지로 경쟁촉진 효과와 경쟁저해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국제적 기업 제휴는 서로의 보완 자산을 확보하고,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비용절감을 하여 경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술과 지식의 이전을 통한 효율적 경영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이윤은 배당소득으로 사회에 환원되며 생산과 고용의 증가도 실현되는 혜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있는 반면, 글로벌 경영은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불공정경쟁행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빠른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기업의 담합 가능성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이전보다도 더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과 논리로 불공정경쟁행위를 변호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논리를 이용하여 글로벌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증대를 네트워크 효과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변호한다. 기술개발을 위한 몇몇 대기업 중심의 제휴는 첨단기술의 독점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술과 지식의 세계적인 파급과 공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술격차를 심화시키고 진입장벽으로 역할할 수도 있다.

3) 각국 정부의 기업소유에 대한 규제에 따라 제휴방식이 변할 수 있다. 항공이나 통신분야와 같이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상한이 있을 경우 M&A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4) 기업간 제휴는 특히 표준화 경쟁을 고려하여 인지도가 있는 다국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 CD시장에서 소니와 필립스의 제휴가 대표적이고 WAP, i-모드, 모바일 익스프레스로 나누어지는 무선인터넷 기술표준,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누어지는 IMT-2000 서비스 기술표준 등 정보통신 부문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표준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 IV. 국제적 경쟁규범 제정과 한국 경제

많은 국가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쟁저해활동의 감시와 규제는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sup>5)</sup>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Global Competition Forum<sup>6)</sup>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각국은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국제카르텔이나 국제적 인수합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도 국가간 경쟁정책을 표준화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이 자신들의 국제적 인수합병을 국가별로 승인 받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지지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경쟁정책의 국제화에 대한 한국 정부는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지원, 국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산업지원 정책이 경쟁저해요인으로 간주되어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이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자국법 적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경쟁정책은 작게는 구조조정에, 크게는 지식기반경제 건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화가 경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투명하고 경쟁이 치열한 경제일수록 정보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식경영이나 지식기반경제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투명한 기업활동과 공정경쟁환경을 실현하는 규제기관의 역할이 새로운 경제구조를 건설하려는 한국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정】**

### ■ 참고문헌

- 이남기,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방향과 추진과제, 통상법률, 2001년 2월호, 통권 제37호, 2001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쟁라운드의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1-BDO-14-1, 2001
- 홍동표 · 유선실 · 이상오,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전략, 정보통신정책이슈, 제11권 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 Kang, Nam-hoon and Sara Johansson,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 Their Role in Industrial Globalization, STI Working Papers, 2000/1, OECD, 2000
- Kang, Nam-hoon and Kentaro Sakai,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 : Their Role in Industrial Globalization, STI Working Papers, 2000/5, OECD, 2000
- Evans, P. B. and Thomas S. Wurster, Blown to Bit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1998, 1998
- Schaub, Alexander, "The Global Competition Forum: How it should be organized and operated," European policy Center, Brussels, March 14, 2001
- U.S. Department of Commerce, Digital Economy 2000, 2000

5)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OECD, WTO 등을 중심으로 무역과 경쟁정책의 보완관계에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외형적인 자유화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경쟁정책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비판세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1)

6)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chaub(2001) 참고.

7) 자국의 공정경쟁법을 외국기업에 직접 적용하는 역외적용을 각국 경쟁기관이 무차별적으로 하게 될 경우 글로벌 경영을 전개하는 기업은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사업자에게 자국법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국가간 갈등을 방지하고 국가간의 경쟁규범을 일정수준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이남기, 2001)